



대구대학교 제18대 노동조합 위원장 · 부위원장

선거 소견문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대구대학교 제18대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위원장 후보 이철환, 부위원장 후보 이승희,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지난 17대에 이어 다시 동지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17대 노동조합의 22개월 간 활동에 대해 동지 여러분께서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를 내려주신다면, 기호 2번 이철환 · 이승희 후보는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께서 지난 17대 노동조합을 저희에게 맡기실 때 많은 기대를 보내주셨고, 저희 또한 여러 약속들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깊이 성찰하면 불완전한 환경과 위기의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저희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동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 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뜻을 먼저 고백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22개월 동안 동지 여러분의 지혜로운 단결력으로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수행했습니다. ① 17대 노동조합 출범식을 비롯해 조합원 단합 트레킹 대회를 무사히 치러냈고, ② 2019년 단체 및 임금 협약에서는 퇴직보전금의 원상복구 명문화, ③ 성과급 및 가족수당 인상 체결, ④ 2020년 노사협의회에서는 방학 중 단축근무 및 특별휴가 성취, ⑤ 2020년 단체 및 임금 협약에서는 방학 중 단축근무 및 유연근무제를 쟁취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지 여러분의 지혜와 결심에 의해,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이뤄낸 것입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17대 노동조합의 활동 경과를 가감 없이 올려 놓았으니, 살펴주시고 냉엄한 평가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다시 세워질 18대 노동조합 앞에는 주지하듯 극단의 위기 상황과 극복의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 기호 2번 이철환 · 이승희 후보는 노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소통 방법을 모색하여 조합원 동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동조합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생존터의 위기 극복,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상생의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 생존터는 리더십 상실과 입학생 모집 대실패, 총장의 해임과 복귀라는 혼란스러운 최악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학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할 법인은 무능함과 오만함으로 대학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고통받고 있으며 우리 일터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직원사회의 의연한 대처와 담대하고 안정적인 행정으로 빨라지는 붕괴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의 불씨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제18대 노동조합은 더욱 나아가서 생존터의 위기를 종식시키면서 공존공생의 지혜를 제시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역사마다 위기 국면에서 항상 희생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지켜왔듯이, 또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며 생존터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사회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평등·비민주성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18대 노동조합은 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하는 생존터를 위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되, 경영의 무능과 상실에는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민주주의와 평등 실현을 위해 조합원의 사회적 기본권을 쟁취하겠습니다.

제17대 노동조합의 첫 민원이 조합원의 사회적 인격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원활한 해결로 종료되긴 했지만,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봉건적인 문화와 관행으로 점철되어 있는가를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병폐는 총장선출제에 대한 참여방식의 문제, 즉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정립시키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총장선출제 정립 과정에 나타난 우리 대학만의 고착화된 관행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상식과 너무도 다르고, 나아가 생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육공동체 내에서 교육·연구와 행정·관리의 영역을 상하관계, 주종관계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현대적 규범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이 낡은 통념에 맞서 투쟁해야 합니다. 직원과 교원은 동일하게 임명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18대 노동조합은 공동체 내의 민주주의가 올곧게 실현되고 교육적으로도 표상이 되도록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기호 2번 이철환·이승희 후보가 17대에서 준비하고 진행해왔듯이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조합원의 권익과 복리를 지키고 쟁취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본령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경영의 실패, 즉 입학생 모집 실패의 결과 앞에서 원인의 명확한 분석과 책임소재의 파악도 없이 고통을 직원사회로 전가시키면서 조합원의 임금삭감까지 거론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비롯하여 복지혜택 개선 등도 노동조합의 기본적 역할이므로 방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부당한 처우나 비인격적 대우, 차별적 행위, 노동강도의 편중성 등에 대해서는 17대 노동조합에서 감시해왔듯이 경계하여 살피겠습니다. 일반적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각종 기본적인 역할을 채용하고, 노동관계 법률적 판례 등을 원용하여 반드시 조합원의 권익과 복리를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17대 출마의 인사에서 밝힌 ‘명예롭게만 퇴직하게 해달라’고 하신 선배 조합원께서 퇴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선배님의 뜻대로 명예롭지 못한 현실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철환·이승희 후보는 어떤 표현의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선배님은 직원사회의 단결과 노동조합의 건승을 부탁하고 기원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희는 지난 22개월 간 노조회보 22회, 위원장 업무일지 98주차 490일간의 기록들을 되짚어 살펴 성찰하면서 동지들의 눈빛을 항상 의식했으며, 부족할지라도 노동조합의 본령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기본권을 지키고자 규약에서 제시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민형사상의 피소를 당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지만, 저희는 방파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동지들의 선두에서 이탈하거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동지 여러분의 명령으로 기호 2번 이철환·이승희 후보가 노동조합을 다시금 맡게 된다면, 우리 직원사회의 단결된 지혜와 힘으로 조합원의 자존심을 지키는 유능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뜻을 실천하는 능동적인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한 노동조합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7.

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임원선거

기호 2번 위원장 후보 이철환·부위원장 후보 이승희 올림

